

문학 거장이 말하는 세계 명화 이야기

내가 사랑한 명화 - 김원일의 미술 산문집

김원일 지음



“밀레에 대한 친근감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삭 줍는 여인들’을 마주했을 때, 옛집 벽에 걸렸던 그 그림과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주었다. 선잔 깬 내가 놀랐듯, 오밤중에 집으로 숨어들어 아버지를 체포하러 순경들이 구둣발째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을 때 그림 속의 여인네들도 겁먹어 놀랐을 것이다.”(밀레의 ‘이삭줍는 여인들’에서)

‘마당 깊은 집’, ‘불의 제전’, ‘아들의 아버지’ 등 명작으로 유명한 김원일 작가. 한국 문학의 거장인 그가 이번에 미술산문집 ‘내가 사랑한 명화-김원일의 미술 산문집’을 펴냈다. 제목처럼 책은 작가가 평생에 걸쳐 사랑해온 그림(또는 조각) 46점이 걸린 마음의 화관을 순회하며,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그려낸다. 어린 시절 내성적인 소년이었다는 작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작가로 살아오는 동안 내면에는 자신만의 명화가 자리했다. 책에서 언급된 46점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오래 사랑



레핀 작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문학과지성사 제공〉

받은 그림들이다. 저자는 단순히 ‘미술 감상의 길잡이’, ‘그림 읽기 안내서’만을 상정하지 않는다. 한 점의 그림을 통해 화가의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과 문학을 대입한다. 이데올로기를 찾아 가족을 버리고 북으로 떠난 아버지,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 지독한 가난과 두려움으로 점철됐던 성장기, 막내아우의 죽음 등 극한의 삶과 창작에 영감을 주었던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제목대로 펼쳐진다. 책은 2000년 작가가 쓴 미술산문집 ‘그

림 속의 나의 인생’의 개정판으로, 20여 년 만에 새로운 구성과 판형, 디자인으로 새단장 됐다. 새로운 글을 추가하고 몇 편은 빼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그림이란 일철 선입관 없이 그림 자체로만 감상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감상자들은 그 그림에 뒤따르는 에피소드와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작품을 해석하려 한다. 소설 쓰기가 생업인 나 역시 한 장의 그림을 볼 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며 화가의 당시 삶을 엿보려는 습성이 있다.”

양비론은 없다... 약자 편에서 본 ‘조선판 다당제’

조선 선비 당쟁사

이덕일 지음



마처럼 거침 없는 전개가 인상적이었다. 전설의 명작 ‘조선 선비 당쟁사’가 21년 만에 새롭게 단장돼 출간됐다. 2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저자의 내공은 깊어졌고 책 또한 좀더 정연한 논리를 갖추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조선의 건국 세력인 신진사대부는 계유정난(수양대군의 쿠데타) 등을 거치면서 훈구파로 변질된다. 이들을 비판하면서 조정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사림이다. 성종 이후 과거를 통해 등장한 사림은 훈구파의 공격적인 사화(士禍)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세력을 복구에 재도전했으며 명종~선조 무렵에 정권을 장악한다. 그렇다면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한 사림은 조선 사회를 이상적인 나라로 만들었을까? 이들 앞에 드리워진 것은 ‘사색당쟁’이라는 ‘불연’이었다. 동인과 서인으로, 다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사색당쟁’의 끝은 노론의 일당 독재와 세도정치, 망국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정쟁은 개인적인 미움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졌었다. 이는 사물과 사건의 현상 뒤에 자리한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 저자는 피 터지는 당파싸움의 이면에는 과정적 시행을 둘러싼 격렬한 투쟁,

이러바 속명사대주의로 나타나는 교조주의적인 성리학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한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조선판 진보 VS 보수’의 대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 선비 당쟁사’의 덕목은 종립으로 포장하지 않는 지은이의 관점이다. 사실 ‘객관’, ‘양비’ 등의 단어는 대개의 경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에서 사용한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조선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노론’의 정 반대 입장에서 조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당요통략’, ‘정교봉포’, ‘비변사등록’ 등 1차 사료에서 찾아낸 당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봉당’이라는 ‘조선판 다당제’가 어떻게 변질되고, 조선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들여다본다. 그것은 곧 오늘의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 〈인문서원·1만85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노동의 미래=이 책은 ‘현재의 일자리’는 30년 내로 소멸한다. 우리의 일자리와 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화두로 삼아 자동화·기계화로 미래의 고용 기회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삶과 일자리는 어떻게 변모하며, 신기술이 창출할 사회적 부는 과연 어떤 이들이 갖게 될 것인지, 또한 소수에게 몰릴 엄청난 부는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민음사·2만원〉

▲공명1·2=‘가까운 미래에 시간 여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했다.’ 저자 김영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을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곰탕을 먹으며 아버지가 살아 계시던 때로 돌아가 함께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간 여행’을 떠올렸다. 이 책은 범죄, 스릴러, 시간 여행이 배합된 가장 특별한 방식의 소설이다. 저자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하며 ‘곰탕’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네로 소개하고 있다. 〈아르테·1만3000원〉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이 책에서는 경제체제를 ‘4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투자’ 마약과 ‘환율’ 마약, ‘밸류체인’ 마약과 ‘짜깁기’ 마약이 그것이다. 이런 4대 마약을 끊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를요를 저자들은 말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공정경쟁, 비정규직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 세금인상과 보편복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페이퍼로드·1만5800원〉

▲바다의 가장자리=책을 우리를 신비로운 세계로 이끈다. 암석 해안·모래 해안·산호 해안 등 세 유형의 해안을 두루 다루는데, 각 해안의 특징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면면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산호 해안의 세상은 더욱 매력적이다. 레이첼 카슨의 생생한 묘사와 과학적으로 정확하면서도 빼어난 밥 하인스의 삽화는 주위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새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키스해링 낙서를 사랑한 아이=누구보다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했던 팝 아티스트, 키스해링의 삶을 다룬 그림책이다. 보이는 곳에는 어디든 그림을 그렸던 키스해링의 유년 시절이 따뜻한 글과 예리한 그림에 잘 담겨 있다. 키스해링,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인 유명 화가가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전한다. 〈봄나무·1만2000원〉

▲내 친구 마틴은 말이 좀 서툴러요=자폐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마틴의 친구이자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인 ‘나’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다른가요?” “한 가지만 잘하면 어때요?” 책은 조금 부족한 친구를 응원하며 손잡아 주는 그림책이다. 자폐증을 앓는 마틴의 모습을 앞으로 내세워, 겉모습만으로 모든 걸 재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춰진 장점을 알아내는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이야기한다. 나와 조금 다른 사람, 또 어떤 면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심도 일깨워 준다. 〈리임·1만1000원〉



▲나무늘보야 어디가?= 무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나무늘보가 시원한 물놀이 하러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가기 시작한다. 하나 둘, 친구들은 재빨리 갔지만, 나무늘보는 느릿느릿하듯만 하다. 그러다 주르르! 갑자기 미끄러지는데... 유아 그림책다운 단순한 운율과 리듬을 지키면서도, 속도와 높낮이를 대비시킨 강렬하고 독특한 구성으로 책을 꾸몄다. 나무늘보를 통해 ‘느림’을 유쾌하고 짜릿하고 따뜻하게 보여준다. 〈시금치·1만2000원〉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고 전 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셋강다슬기 서구 풍곡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탕·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순남형 대표 김병환 ☎062)233-363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할.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팩트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주택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주택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중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월래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 흥 나 루 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무 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에덴신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